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성혜원** 한세영***

Effects of Mother's Affectionate Parenting,
Psychological·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Sung, Hey won Han, Sae Young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통제 및 유아의 자기통제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368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및 상관, 요인분석, Cronbach's α ,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는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을 애정 및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분하여 유아의 자기통제라는 내면화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을 설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유아, 애정적 양육행동, 심리통제, 행동통제, 자기통제, 문제행동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제 1저자: 충북대학교 석사(E-mail : wonie0321@nate.com)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E-mail : evenhow@ewha.ac.kr)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임.

I. 서론

유아의 문제행동은 그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사나 부모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학자들로부터 원인파악과 더불어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발달의 한 이슈이다. 일찍 시작된 문제행동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심화되면 교육적 중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으므로 유아기의 개입과 중재를 통해 문제행동을 조기에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이미자, 2000), 유아기 문제행동의 조절을 위해서 그 문제행동의 배경이나 원인이 되는 관련변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 이원영(1984)은 유아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부모의 양육 태도 방식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자녀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순옥, 2002). 즉, 어머니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후기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하나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정혜인, 2003).

부모의 양육방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성격을 연결한 Freud와 양육방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Symonds나 Schaefer 이래로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수용(또는 애정)과 통제가 양육방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왔다(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김현주, 2008).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초기에는 수용과 통제를 기준으로 4가지 양육유형을 구분하여 권위적, 민주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행동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육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애정, 지지, 논리적 설명, 방임, 개입 등 양육행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에 접근하고 있다. 그 중 공통적으로 그 중요성이 밝혀진 변수는 수용(또는 애정)과 통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통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은 지지와 애정적 양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는 온정과 사랑으로 관심 있게 돌보며 지지하고 수용하는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다(이원영,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애정적일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최미나와 신나나(20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이나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이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온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최선주, 2005).

양육방식의 또 다른 차원인 통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아동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규범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다(Maccoby & Martin, 1983).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통제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제의 영역이 구분되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 부모의 통제를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분해 접근하기 시작하였다(Baber, 1996), 심리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되며, 이로 인해 아동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졌다. 한편 행동통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자녀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부모의 지도·감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Pettit et al., 2001), 이러한 내용은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의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이러한 통제 방식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숙영, 2007). 김송아(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모두 높게 나타났다(정윤주, 2004).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애정적인 양육환경은 어머니의 통제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동시에 죄책감이나 실망감 등을 가지게 하는 심리통제가 높을 때 자녀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친근한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반면 죄책감과 실망감 등의 심리적인 통제를 통해 자녀들의 심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Aunola & Nurmi, 2005).

반면, 행동통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리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희화, 2003; 이미정, 2010; Barber & Harmon, 2002). 행동통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이미정, 2010). Ramsden과 Hubbard(2001)은 주로 과잉 보호적 양육을 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행동통제를 많이 사용하며 이로 인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희화(2003)는 부모의 행동통제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을 포함한 비행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과 동시에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아동의 건강한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유아의 자기통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자기통제 개념은 19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Vygotsky(1962)와 Luria(1961)에 의해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Vygotsky(1962)는 자기조절 능력을 의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자기조절 능력의 근원을 혼잣말(private speech)의 출현과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정란(2003)은 유아의 자기 조절을 인지과정의 자율적인 조절능력으로 보고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을 자기점검요인과 자기통제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자기통제(self-control)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 만족이나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님, 2000).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안미경, 1996)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이수연, 1985; Silverman & Ragusa, 1990).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장 빈번히 검증되고 있는 변인이다(김혜리, 양옥승, 1995). 온정적이면서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통제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되며(Silverman & Ragusa, 1990),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에 긍정적 영향(안미경, 1996; 이미라, 1999; 이수연, 1985)을 미치는 반면,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님, 2001; Kochanska & Aksan, 1995). 또한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적절한 지연 행동

을 나타낼 때 보상을 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Olsen, Bates, & Bales, 1990).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기초로 하여(Kopp, 1982), 자기통제가 시작되므로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자기통제능력과 문제행동간 관계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통제가 낮은 유아들은 충동적이고 과다행동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도 흥분을 잘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김선희, 김경연, 1999). 또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며(강기숙, 2001), 자기통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가지는데, 자기통제능력이 낮은 아동은 비행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민수홍, 1998). 한편, 자기통제를 적절히 발달시킨 유아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신중하며, 학업과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ethi, Mischel, Aber, Shoda, & Rodriguez, 2000).

많은 연구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억제능력, 주의통제와 인지처리 능력을 포함하는 조절능력의 부적절성간 연관을 보여준다. 외현화문제의 경우에는 자기조절 능력이 외현화 문제를 예측 할 수 있다는 일관된 선행연구의 보고가 있었으나(Olsen, Schilling, & Bates, 1999; Oosterlaan & Sergeant, 1996; Rothbart, Posner, & Hershey, 1995),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의 유아기의 발달정도는 이후의 발달 단계에도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성인기의 삶에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Shaffer, 1993),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행동 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상담 및 치료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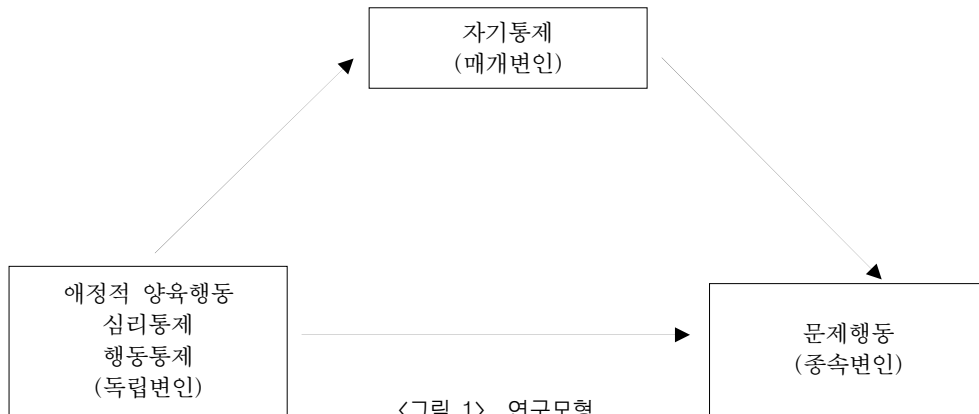
2-2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면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며, 유아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자기통제가 매개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의 공립 유치원 2개, 사립 어린이집 3개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어머니 5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유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98부(회수율: 79.6%)를 회수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30부를 제외한 총 36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45.9%, 여아가 54.1%이고, 연령은 만 3세가 27.4%, 만 4세가 32.1%, 만 5세가 40.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5세,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6.9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31.5%, 대졸 이상이 68.5%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22.8%, 대졸 이상이 77.2%를 보여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56.5%이며, 취업주부는 43.5%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 22%, 일반사무직 21.7%, 생산/기술/노무직 19.3%, 판매/서비스업 13.3%, 기타 12.8%, 공무원 10.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4.1%, 200-300만원이 25.5%, 300-400만원이 29.1%, 400만원 이상이 17.4%, 500만원 이상이 13.9%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71)

유아의 성별	남아	45.9%	유아의 연령	만 3세	27.4%
	여아	54.1%		만 4세	32.1%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1.5%	아버지 학력	만 5세	40.5%
	대졸이상	68.5%		고졸 이하	22.8%
어머니 취업여부	전업주부	56.5%	아버지 직업	대졸이상	77.2%
	취업주부	43.5%		전문직	22%
가족의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4.1%	아버지 직업	일반사무직	21.7%
	200-300만원	25.5%		생산/기술/노무직	19.3%
	300-400만원	29.1%		판매/서비스업	13.3%
	400-500만원	17.4%		공무원	10.9%
	500만원 이상	13.9%		기타	12.8%

2. 측정도구

1)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그리고 하은혜(1997)가 번안하고 송민정과 한세영(2011)이 사용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내면화 문제행동 16문항, 외현화 문제행동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리아이는 다른사람들과 자주 말다툼을 한다 “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내면화 문제행동 .88, 외현화 문제행동 .90이다.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임성실(2010)의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적 양육, 거부적 양육, 통제적 양육, 자율적 양육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 9문항만 질문지에 사용하였다.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잘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84이다.

3) 어머니의 심리통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인 PCS - 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을 전숙영(2007)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통제는 어머니가 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유아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심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심리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아이를 비난하였다”와 같은 문항이 있고,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83이다.

4) 어머니의 행동통제

어머니의 행동통제 척도는 Slater와 Power(1987)의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수정하여 Judith와 Christopher(2002)가 사용한 것을 기초로 진순옥(2003)이 국내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통제는 어머니가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물어 보았다”와 같은 문항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68이다.

5) 유아의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란(2003)이 개발하고 김혜원(2007)이 수정·보완한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점검, 자기통제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만 사용하였으며, 자기통제는 행동억제와 정서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행동억제 10문항, 정서성 7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말라고 하면 억제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81이다.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Cortina, 1993; George, & Mallery, 2003; Kline, 2000).

3. 조사절차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각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한 질문지를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원장과 교사를 통해 질문지 참여방식과 연구취지를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 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소재의 공립 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 1곳의 유치원생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5일간 시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문항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심리통제, 행동통제와 유아의 자기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를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심리 통제, 행동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한다.
- (2)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한다.
- (3)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하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3번째 단계에서 떨어져야한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행동 통제, 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4에서 .59로 변수들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본 결과 VIF값은 .010에서 .236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N=171)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② 심리통제	-.29***					
③ 행동통제	.33***	.06				
④ 유아의 자기통제	.37***	-.39***	.14**			
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	-.21***	.48***	-.03	-.32***		
⑥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32***	.50***	-.06	-.60***	.46***	
평균	3.26	2.11	3.20	2.79	1.64	1.59
표준편차	.44	.39	.49	.38	.43	.46

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② 심리통제 ③ 행동통제
 ④ 유아의 자기통제 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 ⑥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자기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변인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투입과정은 동일하므로 이후에 제시되는 표에서는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표 3>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7,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21, p < .0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29, p < .001$),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beta = -.10, p < .05$).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애정

적 양육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 유아의 자기통제	.37***	.13	56.17***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21***	.04	16.40***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 자기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2)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29*** -.10*	.11	23.31***

* $p < .05$, *** $p < .001$

<표 4>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7$,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2$, $p < .0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56$, $p < .001$),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beta = -.12$, $p < .01$).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유아의 자기통제	.37***	.13	56.17***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32***	.10	43.06***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 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2) 어머니의 애정적양육→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56*** -.12**	.37	108.22***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5>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9,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48, p < .0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16, p < .001$),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미약하게 감소하였다($\beta = .42, p < .001$).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약하게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심리통제→ 유아의 자기통제	-.39***	.15	67.42***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심리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48***	.23	111.58***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2)어머니의 심리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16** .42***	.25	62.22***

** $p < .01$, *** $p < .001$

<표 6>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심리통제→ 유아의 자기통제	-.39***	.15	94.42***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심리통제→ 외현화문제행동	.50***	.24	119.60***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2)어머니의 심리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48*** .31***	.44	142.99***

** $p < .01$, *** $p < .001$

<표 6>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39,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50, p<.0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48, p<.001$),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beta=.31, p<.001$).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7>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14, p<.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2, p<.001$),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자기통제	.14**	.02	6.99***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03	-.002	.38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2)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	-.32*** .01	.10	21.23***

** $p<.01$, *** $p<.001$

<표 8>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14, p<.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60, p<.001$),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자기통제	.14**	.02	6.99***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06	.001	1.28
3단계(매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유아의 자기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2)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	-.60*** .02	.36	102.60***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심리·행동 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본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상담 및 치료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 하였다.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둘째,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 하였다.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셋째, 유아의 자기통제는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는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의 자기통제가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송희(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면 유아가 안정감을 가지고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애정적인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타인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게 되므로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유아의 자기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정적이면서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통제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Silverman & Ragusa, 1990)와도 일치하며, 이는 선행연구의 어머니의 온정적·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안미경, 1996)과 만족지연 능력(이수연, 198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조윤미(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애정적 양육을 바탕으로 함양된 자기통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 능력이 낮은 아동은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민수홍, 1998)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유아가 자기통제를 통해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문제행동도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폭보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기통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보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보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비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접근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에서 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더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외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더 있으며 이를 탐색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는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심리통제로 인해 유아의 자기통제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는 권기정(2010)과 Steinberg(1990)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아동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통제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많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배인주, 2014; Tu, Lee, Chen, & Kao, 2014). 이는 내면화 문제행동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여(정우희, 2013; Tu, Lee, Chen, & Kao, 2014), 심리통제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심리 통제를 하는 어머니가 아동을 심리적, 정서적 감정 및 표현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녀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욕구를 무시한 채 독립심의 표현이나 자율성을 차단하는 등으로 인해 유아의 욕구 불만이 표출되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자기 통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통제적이고 엄격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선행 연구(이경님, 2001; Kochanska & Aksan, 1995)와 일치한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와 관련된 요소에 영향을 미쳐, 자기조절의 일부인 자기결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적게 할수록 자기결정력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여(김유진, 2010), 이 또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 표현을 억압하고 독립적인 자존감과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여 그 결과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한 경우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유아의 자기통제를 매개로 한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를 거쳐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접근할 때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접근할 때보다 자기통제 함양을 강조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자기통제에는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통제를 잘 하는 유아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직접 상관은 없으나 내면화 문제행동과는 직접 상관이 있다고 밝힌 조성덕과 한세영(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외연구들은 행동통제 중 주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파악하고 감독(monitoring)하는 형태의 행동통제에 관심을 가져 그 대상이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많았는데, 부모의 감독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Lee & Randolph, 2015). 그러나 많은 연구가 본 연구대상보다 연령이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의 행동통제와 심리통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경님(200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통제적 양육의 속성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아야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제적 양육 중 행동통제라는 긍정적 속성을 구분하여 접근하였을 때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제의 속성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에게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가 기초가 되어 유아의 자기통제가 발달하므로, 행동통제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통제를 잘 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자기통제를 잘하는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음을 의미한다는 박은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것은 자기통제가 부족한 아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과 외현화 문제를 보인다는 (김선희, 김경연, 199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유아는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행동을 사회적 요구와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현재의 혐오적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경임(1996)의 연구에서 이유를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유아는 충동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라 해석된다. 비록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법에 의해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통제가 매개효과를 갖지 못 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유아의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유아의 자기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어머니의 직접적인 행동지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 유아에게 보여주는 애정표현과 같은 애정적 태도를 제공하고,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는 심리적 통제를 삼감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는 부모교육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감소를 바라지만, 어머니들은 문제행동의 감소가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내면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어머니의 구체적인 행동지시를 통해서가 아닌, 행동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행동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평소 유아에 대한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고 유아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애정철회, 비난 등의 심리적 통제를 자제하여 유아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행동에 대한 수정만 이루어질 뿐 유아 개인의 인격이 손상당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함으로써, 가정에서 가정 중요한 어머니 양육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부모교육현장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양육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에게 중요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적 양육행동,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애정과 통제의 차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뿐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통제라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유아의 자기통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통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

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기반이 되는 문제행동의 감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아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포함한 적절한 지도 및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기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일부지역에 국한된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머니 보고에 의해서만 측정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유아들이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행동을 기관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아가 보이는 모든 문제행동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전국 규모의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보고 자료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자기통제가 매개 효과를 가짐으로 자기통제 외에도 정서성, 자기결정, 행동억제 등 자기조절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내면화와 외면화로 분류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의 하위변인으로 세분화 하여 하위변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심리통제,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어머니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고,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장기숙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인지양식 및 자기통제 행동발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기정 (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2), 51-66.
-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옥 (2002).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 (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외향성, 자아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김현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및 공격성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2007). 어머니의 정서 조절능력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마송희 (1991).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수홍 (1998).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 91-124.
- 박혜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인주 (201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통제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혜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민정, 한세영 (201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5), 117-127.
-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남 (2001). 학령기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 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9(12), 37-50.
- 이경임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 통제능력, 과제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라 (1999). 아동의 인지 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자 (2000). 유아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성실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2-110.
- 조성덕, 한세영 (2013). 어머니의 자존감과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99-117.
- 조윤미 (2013).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우희 (2013).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불안,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혜인 (200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순옥 (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나, 신나나 (2015).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83-310.
- 최선주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 윤명희, 강성빈, 낙운, 황혜신 (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2-88.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104.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 Judith, H. S., & Christopher, P. R. (2002).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interpersonal conditions, clinical effectiveness, and speech effectiveness within*. New York: Harbinger Publication, Inc.

- Kline, P.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New York: Routledge.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09-214.
- Lee, J., & Randolph, K. A. (2015).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ggressive behavior among you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 cross-natio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 1-9.
- Luria, A. (1961).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 New York: Liveright.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1-101). New York: Wiley.
- Olsen, S., Bates, J., & Bales, K. (1990). Early antecedent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4.
- Olsen, S. L., Schilling, E. M., & Bates, J. E. (1999). Measurement of impulsivity: construct coherence, longitudinal stability, and relationship with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51-165.
- Oosterlaan, J., & Sergeant, J. A. (1996). Inhibition in ADHA. aggressive, and anxious children: A biologically based model of child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1), 19-36.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Michael, M.,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3*(6), 657-667.
- Rothbart, M. K., Posner, M. I., & Hershey, K. L. (1995). Temperament, attention,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s* (pp.315-340). New York: Wiley.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84.
- Sethi, A., Mischel, W., Aber, J. L., Shoda, Y., & Rodriguez, M. L. (2000). The role of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in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edicting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from mother-toddler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67-777.
-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3rd Ed.)*. California Brooks/cole.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Genet Soc Gen Psychol Monogr.*, 116(4), 435-473.
-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pp. 197-228). Greenwich, CT: JAI Press.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u, Y., Lee, H., Chen, H., & Kao, T.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control, adolescent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Taiwa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2(19), 335-343.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ffectionate parenting · psychological · behavioral control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8 mothers whose young children were 3 to 5years old and attending to 3 private kindergartens and 2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Chunkbuk.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Prima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s self control partially mediated when mo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ffecte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young children's self control partially mediated wh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e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ird, young children's self control did not show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behavioral control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conclusion, young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 well as affectionate parenting have its effect on problem behaviors.

▶*Key Words* : young children, affectionate parenting,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al control, self-control, problem behaviors

논문투고	2015. 06.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20.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